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집지
2014

9 771228 075002
ISSN 1228-0755



Monthly Ceramic Art

월간 도예

June 2014
vol. 219



공동 벽화 타임제직과 세미나 그리고 제작시연

4월 8일에는 모든 참여자들이 공동작업으로 도자벽화용 타일을 제작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은 주최 측이 올해 행사를 기념해 추진한 것으로 참여자들이 제작한 개성있는 타일 조각들을 대학 내 어디와마(Kampus) 갤러리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4월 9일 오전 USM 예술대학 강당에서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워크숍 참가자 중 15명의 작가들이 나섰다. 호주작가 앤드류 브라이언(Andrew Bryant)의 <나의 제작방식(Methods of Making)>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영국 관계사대학교 타이먼 빈스(Tyamen Binn) 교수의 <세라믹과 기물의 창조적 잠재력 연구(Recording Ceramic Waste - an investigation into the creative potential of ceramic waste)>, 터키 아비트(İkbal)대학교 펠라흐 알틴다그(Ahmet Altın) 교수의 <나노기술이 문명의 도자기 문화 유산(Ceramic Heritage of Anatolian Civilization)>, 말레이시아 마라메이시아 아티스트(Asat Artist Adam) 교수의 <1950년부터 2009년까지의 말레이시아 도자기의 경향(Trends That Influence Style of the Malaysian Ceramic Artist(1959-2009))>, 중국작가 후시오펑 푸(Fu Peifeng)의 <전통장작기의 꿈(The dream of the kiln fired wood ash)>, 벨기에작가 조엘 스펜(Luke Spence)의 <나의 작업의 표면아래 있는 우 리의 삶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 (The central question in my work is "what we live inside, under the surface of the appearance"), 터키 출라롱콘대학교 필 수디하람(Fil Sudiharam) 교수의 <산업 디자인 교육 과정에 대한 세라믹 스튜디오의 역할(Roles of ceramic studios in industrial design curriculum)>, 호주작가 로렌드 드러이스(Leanne Drysdale)의 <작가가 있는 장소(place - in and on the Arts)>, 터키 학제사범대학교 무를루 바스카야(Muru Basakaya) 교수의 <2007년에 경험한 종이마 에 대해(My experiences with paper tiles since 2007)>, 미국작가 밌틀스비트(Shelby Swit)의 <개인설문조사: 개인설문조사: 개인설문조사(Contemporary ceramic artist of the sun Francisco Bay area)>, 말레이시아 마라메이시아 대학교 실와 아움(Silwa Ayo) 강사의 <말레이의 도자기(Shaping the Malay ceramic art)>, 인도 바하라티대학교 고희름 다스(Gouram Das) 교수의 <인도 페퍼를 통한 예술교육(Art education through an art)>, 한국작가 강강훈의 <나의 도예작



업과 국제교류(International ceramic work and international exchange), 일본에서 활동중인 미국작가 더글러스 블랙(Douglas Black)의 <일본에서 보낸 24년간의 생활(Living in Japan for nearly 24 years)>, 태국작가 티터 무앙카위(Thitree Muangkaew)의 <내 작업의 영감과 작품을(Inspiration to do my ceramic work/Project the picture of my work)>와 매년 1월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고 있는 <삼파르대학교 예술대학 도예과 주최 국제도자기워크숍 소개(International ceramics workshop activities in the Department of Ceramics, Faculty of Decorative Arts, Sripatum University)>로 이어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국의 도예 현황과 작가별 독특한 작업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월 9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는 미술대학 입마당에 마련된 작가별 개별부스에서 작품제작시연 워크숍이 진행됐다.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열정적으로 자신만이 지닌 흙을 다루는 기법과 도구, 방식 등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며 뽐냈고, 틈틈이 다른 작가의 시연을 관람하고 기술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워크숍의 열기를 한층 달아오르게 했다.

11일 오후에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뱅크 파우저야 미술관(Bangkok Pajoye Museum and Gallery)' 및 정원에서 야외노조각소상을 진행했다. 6개조로 나눈 5~6명의 작가들 앞에 대형 드럼통이 하나씩 주어졌다. 미리 준비해온 초밥기물에 인포를 바르고 나무 팔과 함께 재임한 후 지옥한 안기를 돌리며 반조를 시작했다. 흙물을 지내고 반조가 완료된 드럼통기마에서 작품을 꺼내며 자신의 기물 표면에 여러 색의 안료와 깨이 재가 안착된 것을 확인했다. 미적완성도에 따라 각자의 화비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이내 결 과물에 대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SELSIUS - USM

말레이시아 페낭 <2014국제세라믹페스티벌>International Ceramic Festival 2014< 현지취재

동양의 진주 혹은 인도양의 에메랄드라고 불리는 말레이시아의 페낭섬, 적도 근처로 열대기후이면서 천재지변의 피해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천혜를 얻은 이곳에 세계 14개국 57명의 작가들이 모여들었다. 지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말레이시아, 과 학대학교(University Sains Malaysia, USM) 예술대학(학장 오마르 비딘^{Our Bin}) 주최로 개최된 (2014국제세라믹페스티벌)에 모인 작가들이다. 이들은 (selsius¹ - usm)이라는 주제이해 진행한 특별전시의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류를 나누었다.



<2014국제세라믹페스티벌>을 주최한 USM은 말레이시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잘 알려진 중남대학으로 페낭섬에 메인 캠퍼스가 있고 공대학 은 세리 앙팡 지역, 보건과학대학은 쿠방 케리안 지역에 분교를 갖고 있다. 현재 별도의 도예전공과는 없지만 예술대학 내 예술 디자인학부 에서 도예를 가르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에 진행된 USM 캠퍼스는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은 채 지어진 낮은 건물과 숲속처럼 우 기진 열대우림이 어우러져 현대 도시 문명에 반해받지 않은 듯 담담하게 도자예를 품고 말려서 날아온 이방인들을 맞고 있었다. 행사의 주제 (selsius)는 '세세'라는 의미의 말레이어로 도자기 가마 번드 중에 확인되는 온도를 뜻한다. 이 행사를 총괄 기획한 USM 예술 디자인 대학 상수 모하메드(Samsu Mohamad)교수는 '주제에는 아직 도지예술 문화의 자원이 약한 지역에서의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 우 리가 가진 도자예술에 대한 열정과 열정으로 지역 도자문화 활성화에 대한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항상 뜨거운 불꽃처럼 살아있음을 알 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기획전

USM 캠퍼스 가장 인포에 자리한 '행쿠 파우지아 미술관(Tenaku Fuziah Museum and Gallery)' 1층 특별 전시실에서 열린 기획전은 말레이시아 국립공예연구소 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raditional Malay Arts and Crafts의 후원으로 열렸다. 전시에 참여한 57명의 작가들은 조각과 설치, 장식 등 다양한 양식의 대표작품 을 선보여 각국의 현대예술평면과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몇몇 동남아시아 작가들의 개성있는 작품이 눈에 띄었다. 말레이 시아 전통 주방식기를 중심으로 재해석한 말레이시아 작가 오마르 비딘^{Our Bin}을 비롯해 해외의 물성을 최대한 활용, 물려성형의 다양 한 형태와 색감으로 음복을 표현한 말레이시아 작가 핀 수다히람^{Pin Sudhikam}의 '리듬(Rhythm)', 흙 고유의 질감을 표면에 고스란히 담고 생활식기와 기 하학 영어리의 점점을 예술적 언어로 제시한 태국 작가 핀 수다히람^{Pin Sudhikam}의 'Untitled', 과거 말제 식민시절 정선대로 몸을 바친 여성과 현대 이 슬림문화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성성의 억압에 대한 항변을 설치미술로 표현한 말레이시아 작가 상수 모하메드(Samsu Mohamad)의 'Enslavement',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대예술평면에서는 후발주자로 뒤늦게 출발했지만 꾸준한 연구와 활발한 활동으로 향후 아시아 현대예술평면 이끌어갈 주 요 작가군으로 활약할 것임을 증명하는 듯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Mard Roslan Ahmad 'Rhyt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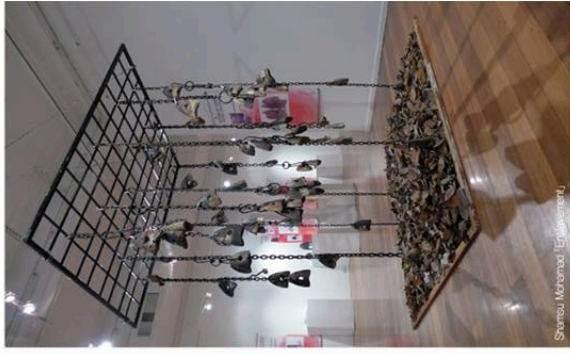
Andrew Bryant 'Spear 23'



Omar Bin 'On the Wall'



Pin Sudhikam 'Untitled'



Samsu Mohamad 'Enslavement'

1) 'selsius'는 '세세'라는 뜻의 말레이어, 영어는 'Celsius'로 표기한다.

아트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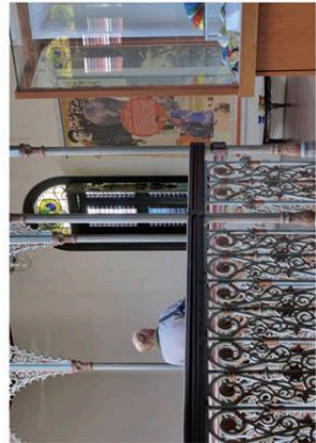
(2014국제세라미페스티벌) 주요 행사를 마친 후 4월 12일과 13일에는 페낭섬의 문화예술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아트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 작가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조지타운'과 그 안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벽화 골목, 그리고 유명 박물관과 갤러리 등을 돌아보았다. 아름다운 한 페낭섬의 이면에는 부자만은 많은 예술가 있다. 특히 '조지타운'은 많은 사연을 지닌 곳이다. 1786년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워킹스 왕자의 성으로 지정하였다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지타운의 예술가리 벽화골목



조지타운 내에서 유명한 카페갤러리 'CHINA HOUSE'



상점이다. (www.art-tour.com)



백상탈의 전통사당

1828년에 말라카와 싱가포르가 합병되어 해협지역이 되었고, 이후 인도와 중국사이의 무역을 위한 해상항로가 되면서 다민종이 몰려들어 복합문화체를 이루게 된 지역이다. '조지타운'이라는 도시 이름은 영국 국왕 조지 3세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곳에는 중국 전통 가옥 형식의 단아 빌라 모여 사는 전원지에서는 풍사라고 부른다. 즉, 풍사문화와 말레이 문화가 합쳐진 바비노(중국풍성 바비, 말레이어성 나보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힌두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등 다종교가 혼합돼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08년 7월 이 같은 독특한 역사를 지닌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지로 지정됐다. 조지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골목 사이마다 그려진 흥미로운 벽화들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6월 한 달간 열리는 '조지타운 페스티벌'을 통해 각국에서 찾아온 유명 아티스트들이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 예술거리로 알려지게 시작했다. 그밖에도 현대시 갤러리와 박물관, 엔터테인먼트, 아트상품상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독특한 이국적 예술향을 지닌 매력적인 마을로 페낭 최고의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참여작가들은 조지타운에 이어 말레이시아 최남단부의 볼로소워인 '극락사와 페낭섬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패딩탈', 20세기 초 동남아 최대 부호의 저택인 '칭칭차' (Ching Chee Mansion) 등을 돌아보며 말레이인들의 문화와 예술,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2014국제세라미페스티벌)은 애초 지난 2007년 12월 말레이시아 팔라렐루프 국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아시아세라미네트워킹-Asian Ceramics Network : ACN) 행사로 시작됐다. 당시 한국을 포함해 대만과 일본 태국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인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1개국의 100여명의 도예인과 관련인들이 참석해 기운테 개최된 국제행사로 (ACN)은 한 국에서도 두 차례 개최됐다. 이후 교류가 참례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한 상황에서 2년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자카르타 현대도에 비엔날레)와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한 주 국제 마스탈 축제와 (섬이섬 국제 도예페스티벌), 올해 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해 국 국제 도예 워크샵)을 통해 다시 물꼬를 트면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활약하는 젊은 작가들과 신진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게 됐다. 앞으로 세계 현대도에 흐름의 중심을 아시아로 끌어들이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취재부

<seisius - usm> Workshop Artist

Cheah Yeow Seng, Ibrahim Don, Mohd Roslan Ahmad, Omar Bidin, Shamsu Mohamad(MALAYSIA) Andrew Bryant, Rouley Drysdale(AUSTRALIA) Parf Bo-Sung, Han Jae-sung, Kang Hwa-Su, Shin Hyun-Moon, Kang Kyung-Hun, Kim Myung-Hee, Ryu Nam-Ho, Kim Sang-Ki, An Sung-lu, Jang Young-Hee(KOREA) Bob Pool(USA) David Binny(UK) Douglas Black, Narumi Kawahara(JAPAN) Goutam Das, Vinod Daroz(INDIA) Hendratno Ern, Kurniawati Gautama(INDONESIA) Hu Xiaoping(CHINA) Joelle Swanet(BELGIUM) Melahat Altundag, Mutlu Bozkaya(TURKEY) Pim Sudhikom, Soyumporn Kasornsuwan, Supphakha Peiprame, Thattree Muangkaeue, Wanna Thithamma(THAILAND)

Interview

상수 모하메드(Shamsu Mohamed usm 예술 디자인학부 교수, (seisius - usm)기획자

올해 개최된 (SELSIUS-USM)대한 운영 결과와 평가에 대해

각국에서 초대받은 작가들과 현지 미디어 반응에 의하면 (SELSIUS-USM 2014)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가자들의 호응도 좋았고 행사기간 내내 지역 일간지의 메인시판에 TV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다. 이번 행사의 예산 총액은 85,000RM(약 2천700만원)으로 도록제작 비용 26,000RM, 음식 24,000RM, 호텔 20,000RM, 워크샵 재료 10,000RM 등이 소모됐다. 예산의 대부분은 University of Science Malaysia(국립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원받았다. 참가자들은 응급료만 각자 부담해서 참가했다.

SELSIUS-USM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올해 행사는 201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됐다. 국립미술관과 학교 시스템을 통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서로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주었다. 먼저 (SELSIUS)는 2005년 부터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도예가들의 모임으로 시작했다. 2006년에는 쿠알라룸푸르 PUTRALAJAYA에서 첫 전시를 가졌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아시아 11개국에 참가한 ACN-SELSIUS를 쿠알라룸푸르 National Art Gallery에서 개최하면서 국제행사로의 면모를 갖추고, 2009년 페낭 Penantale Gallery에서 전시한 이후, 공백기가 있다가 올해 2014년 페낭 University of Science Malaysia에서 개최하게 됐다.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도예인구와 일반 대중들의 도지문화에 대한 인식은

말레이시아 전역에 약 600여명의 도예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거나 공예관련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다. 전업 도예



가능은 총 5명 정도이다. 말레이시아의 일반 대중들은 그릇이나 꽃병과 같은 실용도자기만을 도예로 인식하고 있다. 미술영역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자기형예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들의 도예계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는

동남아시아에서 현대도에 분야가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현대 도예가들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이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각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로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현대도에의 영향을 받아, 국내 미술계에서 활약하며 도예문화 인식을 높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SELSIUS-USM)의 앞으로 계획은

올해 6월에는 쿠알라룸푸르의 National Art Gallery에서 (2014 SELSIUS-USM)의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와 워크샵을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결과 USM의 예술대 오마르 비단(www.usm.edu.my) 학생은 이 행사를 2년마다 개최할 것이라고 장담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국내 대학들 중 도예학과 과장이 있는 대학들(UTM, UMINAS, UPS, UMS)이 연합해 더욱 학자진 형태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USM과 본인은 앞으로 말레이시아 내에 도지예술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